

존 파이퍼: 코로나 19의 의미와 목적

성경말씀: 롬8:35-39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공식명칭 코로나 19, 처음 몇 달은 중국, 한국 등에서만 창궐함, 미국, 캐나다 등 안전함, 국내에서는 나를 포함하여 여러 목사들이 코로나19의 의미 등을 분석하고 경고하는 설교.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 별 반응이 없었음

그러다가 이것이 미국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여러 목사들이 그 의미 해석 현재 660만 명, 40만 명 사망, 미국 190만, 11만

그중 대표적인 목사는 존 파이퍼, 영향력도 있고 또 분석이 타당하기에 오늘은 < >

특히 파이퍼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에 주의 기울일 것 당부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존 파이퍼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싱가포르 현지의 한 남성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감염시키는 양상으로 퍼지는 상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 정부와 시민들은 이에 대처를 잘 했고 힘을 합쳐 잘 대응하여 국제적인 찬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교회는 예방 대책을 받아들이면기를 주저하면서 주일예배를 지속해서 드렸고, 일부 교회는 교회 예배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은 ‘믿으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죄악 가득한 도시와 교만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같은 상황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라고 물었다.

존 파이퍼 목사의 대답: “이제 나는 성경을 펴서 이분의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게 걱정이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잘 준비하도록 돕는 것과 지금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고통의 신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차이를 내가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십만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삶에서는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 답을 해 보겠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적·역사적 사실이 있고 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2004년 12월 26일 주일,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이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적 사실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41절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여 줍니다. 41절 제자들의 반응: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이다. 히13:8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즉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사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연 재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2004년 쓰나미가 닥칠 때에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혜롭고 옳으시며 정의롭고 선한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쓰나미라는, 인간이 보기에 심히 악한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을 위해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나는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연적·초자연적 힘이나 재난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로 갈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제지할 수도, 제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완벽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코로나 19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 사탄, 질병이나 피해 등 그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잃고 구석으로 쫓겨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허용하도록 강요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시33:11))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욥42:2)”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난을 감독하고 계시며 제한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질병과 재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관리와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성경에 근거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이런 이해의 바탕이 되는 4가지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가 들어와 탄식하게 된 세상(보편적 고통)

아담과 이브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몸을 포함해 창조된 모든 것들이 타락과 허무함을 경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들도 육체의 이 같은 타락과 부패, 허무함과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0~23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로마서 8장 20~23절 말씀

은 창조 세상이 질병과 재해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물려받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독교인들(바울은 23절에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라고 말한다)도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날) 23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타락과 허무와 질병과 재해와 죽음을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나누면서 탄식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영혼육이 한 인간의 구성 요소, 하늘나라에서도 이 셋을 지닌 존재 구원받는 순간: 세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죽은 성도, 지금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으로 영구히 살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적이 몸이 되고 이 몸이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지산과 합쳐져서 영원히 살게 된다.

고통에 관한 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로마서 8정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함이지 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살전5:9).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과처럼 질병으로 죽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죄와 타락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과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사망의 쏘는 것이 제거되었습니다(고전 15:55).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은혜로서의 질병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백성들을 정화하고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질병을 주십니다. 이것 징계 행위가 아니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전 11장 29~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의 원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전11:29-32

이제 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주 예수님은 종종 연약함과 질병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

지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아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이런 종류의 죽음은 결코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 징죄하기 위함이 아니며 그들을 더 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히12:7-8).

사실: 어떤 성도들은 질병으로 생각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들이 세상과 함께 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고전11:32).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죽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질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보기에 일직 죽는 것 같지만 어쨌든 죽어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죽음이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3. 심판으로서의 질병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이들에게 특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때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왕은 스스로를 높여 신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행12:22-23,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이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동성애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롬1:27,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런 심판과 진노는 로마서 1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4. 하나님의 천둥소리: 회개 촉구

편견 없이 성경을 보라. 홍수, 가뭄, 메뚜기 떼, 쓰나미 혹은 전염병 등과 같은 모든 자연 재해는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공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목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며 회개 촉구 싸인이 아니라고 하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은혜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대로는 이와 같은 자연 재난을 이 땅에 가져오신다. 누가복음 13장 1~5절을 보도록 하자.

당시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옆에 있던 18명이 깔려 죽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의 이유를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 2-5를 보자

바로 이 말씀이 이 순간 ‘코로나19’로 탄식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나와 또 이 글을 읽는 분들,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지금 이 시간 코로나 19를 통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중국 당국이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읽은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점점 더 가혹하게 대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맞추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그 이후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파이퍼는 1달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120여 쪽의 책을 출간하였다. 무료 배포, 한국에서도 한 출판사가 번역해서 무료로 배포
총 124쪽의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등 2부로 구성됐다.

파이퍼 목사는 “지금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음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런 전염병 대유행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102년 전인 1918년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는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아침에 증상을 느끼고 저녁에 세상을 떠났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은 남자도 있었다.

파이퍼는 15년 전인 2005년, 자신의 전립선암 진단 이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함께하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데오 놓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암 투병 후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아가페복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한 적도 있다.

파이퍼 목사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위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크고 높게 솟아 있는 바위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런 외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고 계심을 아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해주실 뿐 아니라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롬 8:28)”고 했다.

2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②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림 ③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④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⑤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⑥선교의 진전을 가져옴.

이 책 논란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

지난 4월,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반기독교단체 미군종교자유재단(MRFF)은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군목인 김 H. 문(Moon H. Kim) 대령이 이메일로 기독교 서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에게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MRFF에 따르면, 김 대령은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PDF 사본을 군의 공식 메일을 이용해 35명의 다른 군목들에게 보냈다.

MRFF 설립자 미키 와인스타인(Mikey Weinstein)은 “존 파이퍼 목사의 책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믿음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 대령의 메일을 받고 언짢아진 22명의 군목들 중 상당수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매우 보수적, 개혁적, 복음주의적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LGBT(성 소수자) 커뮤니티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God.org)에 영상을 올리고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영상에서 파이퍼 목사는 로마서 5장 16절을 인용해 “인류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면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이를 보내기도 하시고 종식시키기도 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이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에 맞추어 살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이어 “이러한 관점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므로 진리이며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용구에서 바른 견해들을 얻었지

만 단지 그것들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동성애 행위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이들이 그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적도 없다”면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동성애 행위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때로 질병은 심판이 아닌 자비로운 깨우침으로써 회개와 화해, 희망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의 방식은 더욱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파이퍼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는 구글 노란 딱지, 결국 게시 중단을 받았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롬8:35-39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아갔자.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